

##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공급선 다변화 추진

### □ 개요

- 중앙아시아의 주요 가스 생산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와 이란에 국한된 가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함.
  - 지난 9월 개최된 UN 총회에 참석하여,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대규모 가스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경과를 협의하고,
  -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는 카스피해 지역 에너지 개발에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설명하였으며,
  - 지난 여름 러시아와의 가스 공급 분쟁의 여파를 감안하여 국제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약 제정을 제의함.
- 지난 7월에는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나부코(Nabucco)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.

### □ 가스 생산 및 수출 현황

-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가스 매장량을 20조  $m^3$ 로 추정하나 독립기관의 검증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며, BP의 에너지 통계자료에 따른 매장량은 2.9조  $m^3$ 로 세계 13위 수준임.
  - 작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영국의 컨설팅기업 Gaffney, Cline and Associates Inc.를 고용하여 매장량 검증을 하고 있다고 발표함.
- 공식 통계에 따르면, 연간 700억  $m^3$ 의 가스를 생산하여 러시아에 500억  $m^3$ 를

수출하고, 이란에 80억 m<sup>3</sup> 를 공급함.

- 2003. 4. 10. 러시아와 25년 기간의 가스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, Gazprom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음.
- 러시아에 대한 가스 공급은 우즈베크와 카자흐스탄을 경유한 CAC(Central Asia-Center) 파이프라인을 통하며, 연간 수송능력은 약 550억 m<sup>3</sup>임.

## □ 러시아와의 협력 지속

- 러시아에 대한 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함.
  - 러시아, 카자흐스탄,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 정상은 2007년 5월 카스피해 동안을 지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과 기존 시설의 개선을 위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, 2007년 12월 정부간 협정에 서명함.
  - 당초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간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100억 m<sup>3</sup>와 카자흐스탄 가스 100억 m<sup>3</sup>를 수송할 예정이었으나, 작년 7월 수송 용량을 300억 m<sup>3</sup>로 확대하기로 합의함.
- 2008. 7. 25. Gazprom 대표 알렉세이 밀러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여, 가스 공급 가격 및 가스 산업 투자 방안에 합의함.
- 가스 공급 중단 등에 따른 분쟁의 여파는 해결할 과제임.
  - 2009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 펌핑장(Pumping Station)의 사고로 인해 러시아로의 가스 공급이 중단된 이래,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 떠넘기면서 분쟁이 발생하여, 9월 13일에야 가스 공급 재개 방안에 합의함.
  - 투르크메니스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에 대한 높은 수출물량 의존도는 유럽으로 직수출을 하지 못함을 의미하며,
  -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유럽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고정가격으로 가스를 구입하고 있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.

## □ 중국과의 협력 강화

- 2006년 4월 니야조프 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2009년부터 30년간 매년 300억 m<sup>3</sup>의 가스 공급 관련 협정에 서명함.
  - 가스 공급에 필요한 파이프라인은 총 7,000 km로서, Amudarya 강 서안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188 km, 우즈베키스탄 530 km, 카자흐스탄 1,300 km를 경유하여 중국 신장 자치구에 도달하며, 중국 국내 4,500 km가 설치됨.
  - 공급 가스는 60억 달러를 투자하여 기존 Samandepa와 Altyn Asyr 가스전의 시설 개선과 현대화를 통해 130억 m<sup>3</sup>를 충당하고, 나머지는 새로운 가스전 개발을 통해 충당할 예정임.
  - 2008년 6월 중국으로 공급할 가스 처리시설 2곳의 건설이 착수됨.
- 2008년 중국에 대한 가스 공급 물량을 연간 300억 m<sup>3</sup>에서 400억 m<sup>3</sup>로 확대하기로 합의함.
  -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연간 공급 물량을 400억 m<sup>3</sup>로 증가할 것을 제의하였으며,
  - 후진타오 주석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공급량을 400억 m<sup>3</sup>로 증액하기로 합의함.
-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됨을 양국 간에 확인함.
  - 지난 9월 UN 총회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, 파이프라인이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어 12월 15일 개통식 진행에 문제없음을 협의하고, 개통식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초청함.
  - CNPC(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)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구간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었음을 발표함.
- CNPC는 2008년 우즈베키스탄 국경 근처 최대 1.3조 m<sup>3</sup>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Bagtyyarlyk 지역의 Samanpede, Hashyldepe, Metedzhan, Gendzhibek 광구에 대한 탐사 및 개발권을 획득함.

## □ 서방과의 협력 확대 제의

- 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서방과의 협력 의사를 피력함.
  -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중국으로의 파이프라인이 곧 완공될 예정임을 밝히면서,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나부코(Nabucco)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할 의사가 있음을 언급함.
  - 아울러, 2009. 9. 23.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, 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, 카스피해 지역에 대한 석유 및 가스 개발에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.
- 국제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을 제의함.
  -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지난 9월 UN 총회에서 금년 여름 러시아와 가스 공급 문제로 분쟁에 휩싸였던 점을 고려하여, 지역적인 협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국제 에너지 시장에 관한 협정 제정을 제의함.
  - 아울러, 지난 수년간 국가 간의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UN 협약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함.

【타슈켄트 사무소 제공】